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관리 위해

# “공원녹지생태분야 전문직 배치 시급”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생태분야 전문직 배치를 주문했다. 서선희 의원(서산동·사진)은 25일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민선 6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생태분야 전문직 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하는 생태도시는 화려한 실천 구호와는 달리 공원녹지 관련 예산이나 인력 배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원은 지난해 기준 총 243개소로 2008년 대비 공원은 75개소, 면적은 16만9000㎡가 증가한 반면, 인력은 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만성지구, 예코타운, 효천지구 등을 포함하면 전주시 공원 관리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태공원 전문직 인력을 태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전주시 생태 관리 인원 전체 72명 중 직원이 39명 공무원이 33명으로 공원분야 26, 녹지분야 46명이 근무하

고 있다. 서 의원은 “공원 및 전주시 녹지지정 정원 24명 중 정원 21명에 5급 정원은 1명뿐인 상황이다”며 “5급 정원 1명마저도 현재 시청 푸른도시조성과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은 헛구호에 머물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14m의 초대형 쓰나미가 몰아쳤지만, 쓰나미 영향지역에 있는 마을 중 오지 후다이 마을만 15.5m의 방조제 덕분에 운동화 하나 젖지 않았다”며 “마을 촌장이었던 와무라씨의 수십 년에 걸친 주민과 중앙정부를 향한 설득으로 마을 앞에 건설된 15.5m 높이

의 방조제 덕분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마을은 1896년 15m 쓰나미로 1000명이 숨졌고, 1933년에도 대형 쓰나미가 몰아쳐 600여 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은 후 와무라 촌장의 결단에 힘을 합친 주민들의 노력으로 재난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시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있다”며 “김승수 시장이 직접 나서 진정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을 집중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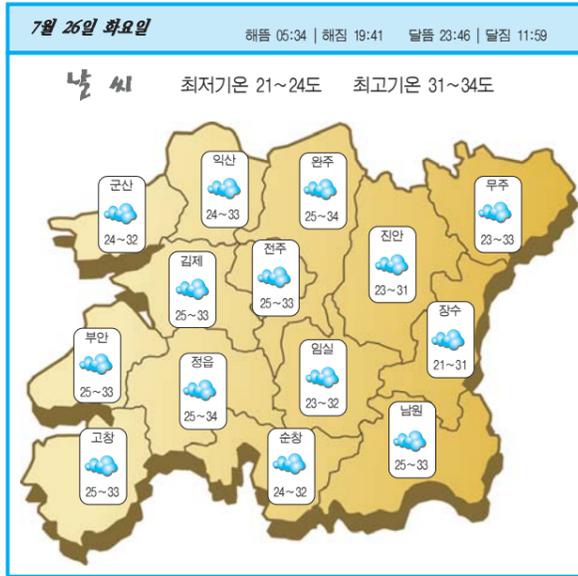
##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활성화 콘텐츠 분야 강화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 구도청사 발굴조사 현황·종합연구보고서 제작 등 추진상황 점검

전주시가 전라감영의 정확한 복원을 위한 고증과 향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분야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는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전라감영 재창조·복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제6차 전체위원회 회의의 개최 이후 3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와 3차례의 고증팀 회의, 2차례의 콘텐츠팀 회의 등 8차례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공유했다. 또, 구도청사 발굴조사 현황, 전라감영 종합연구보고서 제작 등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차 전체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따라 복원 건물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위원회 내부에 별도로 콘텐츠팀과 고증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고증팀에서는 전라감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추진중인 발굴조사와 연계해 복원된 건물의 위치를 확정해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해 전라감영 복원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 또, 콘텐츠팀에서는 향후 복원될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전라감영뿐만 아니라 이를 구도심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전라감영 복원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재 고증팀과 콘텐츠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 향후 발간되는 전라감영 종합연구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우리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초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일방적인 화해와 치유재단 설립한 강행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전라감영 재창조·복원을 위해 구도청사 전체부지 1만6117㎡ 중 지난 2005년 발굴조사 면적과 경찰청동 인근 부지를 제외한 7886㎡를 대상으로 구도청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와 발굴조사 시행기관인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재청의 조사 허가와 도청사 부지 내 주차차량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고지도 및 일제강점기 도면을 참고해 선화당과 관공각 내아 등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을 우선 발굴조사 시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전라감영 복원의 단서를 찾고, 향후 이를 실시설계



##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한다”

201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이번 주 국회 제출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추경안 심사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부금이 내려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정부추에 따르면 이번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1조9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1조1천억원 가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의 재정을 정부가 추경으로 보강해 준만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뺨질식’ 처방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대, 부산 진학 교사 초청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가 전북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을 대상으로도 공격적인 입시홍보를 펼쳐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는 7월 25일 부산지역 진로 진학 교사 40여 명을 초청해 유망 학과를 중심으로 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역 대입 수요자를 위해 전북대 입시전형과 우수학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최영준 입학본부장의 개회사와 이남호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설명회에서는 2017학년도 전북대 대

청결·세상

#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